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Famil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리더십개발원
조 교수 김 경 아**

Sookmyung Global Leadership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Kim, Kyoung-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studying liberal arts in Seoul. 400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March 11 through 18, 2010. Among them, 386 completed surveys were utilized as the data for the statistic analyses. SPSS were appli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 children of mothers with leadership have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those from families of mothers without leadership. This has been determin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children according to their m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family. Second, the adolescent group with mothers who s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managing the home have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n the group without such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2-0907-0005).

** 주저자, 교신저자: 김경아 (kakim@sm.ac.kr)

mothers. This was determined as a result of reviewing adolescent childr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m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vel in the family.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show positive relations by group. That is, adolescents living table lives are more positive about their future. Lastly, when comparing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m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famil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has gained more credibility as stage ads.

Based on the results, when mothers nurture children with a affection-based autonomy, children gain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leads to firm beliefs about constructive futures. Therefore, for successful and systematic career development, CEO m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uld serve as its foundation.

Key Words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Family),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 서론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여명은 80.5세로 나타났다(http://www.kostat.go.kr).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의학과 노인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의 로드맵이 더욱 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신기술의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업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까닭에 진로 선택과 결정은 더욱 더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 설정해야 하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에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탐색의 기회

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 수립, 학업 부담, 부모-자녀 관계의 리모델링, 친구관계의 조화 등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입준비의 교육풍토 속에서 학업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긴장과 혼동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면서 우울, 불안, 좌절 같은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 같이 급급한 현실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고 미래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고 올바른 자아확립의 여유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부모의 역할과 지원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청소년기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이론은 진로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Lent, 2005). 특히 청소년기 삶의 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부연하면 가정은 청소년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환경이므로,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발달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부모는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과 확신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밑그림을 구체적인 조감도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진로이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진로선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자신에게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진로선택에 같이 호흡하며 동참해 나가는 코치(coach)이며 멘토(mentor)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펙(speck)을 요구하는 입시부담이 과열되면서 진로 문제는 더 이상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기대와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와 폐단을 낳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자신의 바람직한 정체성 속에서 미래를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건인차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떠오르고 있는 리더십의 개념이다. 조직을 넘어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그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리더십의 원칙은 가정생활 영역에서도 그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찌기 이문용과 그의 동료들(1988)은 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적리더십 모형에 근거하여 자녀의 성숙수준에 따라 부모의 자녀지도방법을 위임적, 참여적, 설득적, 지시적으로 나누어 가정내 효과적인 부모의 리더십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리더십은 자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부모양육행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리더십의 연구는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훌륭한 부모들은 자녀를 행복하게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기 진로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안윤정, 2010)을 볼 때, 수평적이고 윈-윈(win-win)의 조화로운 성장을 중요시하는 어머니의 리더십은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어머니들은 가정경영의 실질적인 리더, CEO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실제 자녀들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1세기 유용한 모델로서 어머니의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자녀 스스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연승, 2007). 타인의 성장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지향하는 리더십의 가치는 왜곡된 사랑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헬리콥터맘과 캥거루족 자녀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헬퍼십의 입장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주도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대표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심리적복지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삼아 이의 상승을 위한 제반전략을 가정과의 연계선상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청소년기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되는 우호적 제별인을 가정환경적 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기 현재 및 미래생활에 가정 CEO인 어머니의 리더십 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안정과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의 역량을 실증적으로 밝혀냄과 동시에 21세기 바람직한 어머니의 자질을 도출함으로써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모두에게 효율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1980년대에 이르러 조직 및 기업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즉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비롯하여 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이슈리더십, 코칭리더십, 윤리리더십, 창의적리더십, 팀리더십 등 각각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리더십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질적, 양적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온 변혁적리더십은 정치사회학자인 Burn(1978)의 저서 Leadership을 토대로 시발되었다. 이후 유사한 개념인 카리스마적 리더십 등을 포함, 발전시킨 Bass(1985)는 변혁적리더십의 연구를 더욱 확장, 체계화시켰다. 거래적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달리 변혁적리더들은 부하들 스스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지닌다. 즉 변혁적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간의 경제적 교환개념이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뿌리를 두어 상호간의 신뢰

감과 존중감을 근간으로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니만큼 혈연관계로 이어진 가정으로의 치환에도 매우 적합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변혁적리더십을 가정학에 최초로 접목시킨 박미석과 김경아(2006a)는 가정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한편,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접근방법과 관점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변혁적리더십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간이 되는 Bass(1985)의 연구에서는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지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카리스마(charisma),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개별적고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등의 3가지 행동요소를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을 규정하였다. 우선 핵심을 이루는 카리스마는 영감적동기부여, 비전창출과 제시, 이상적 영향력으로 나뉘며 가족원 간의 감정적 연대감을 촉진시켜 주고 가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뚜렷한 비전제시를 통해 가족원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동기부여시키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별적고려란 가족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역할기대와 관심, 배려를 통해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즉 코치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가족원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지적자극이란 기존에 직면해 오던 문제들에 대하여 창의성과 혁신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정관리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점차 가정환경에 리더십을 접목한 연구들이 점차 시도되면서 가정을 경영하는 부모의 역할은 곧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CEO의 역할과 견주어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

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최종임(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변혁적리더십을 갖고 있는 부모일수록 적극참여, 한계설정,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더십개념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실제 자녀의 행동에 일련의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중희, 1992).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의 바람직한 역할은 청소년 자녀의 자기통제력(홍애경, 2000)과 학업성취도(Bogensneider, 1997)의 상승을 유도할 뿐 아니라 비행행동(신연희, 2001)의 통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관련 선행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상태이나 리더십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양적, 질적, 프로그램 등 연구방법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연구와 관련하여 가정리더십의 척도개발 및 관련변인과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졌다. 즉 Galbraith(2000)는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리더십이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어 가족리더십 스타일과 가족의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Galbraith & Schvaneldt, 2005). 국내에서는 박미석과 김경아(2005)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척도개발을 완성하였다. 척도개발과 함께 양적인 접근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정관리자의 변혁적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박미석·김경아, 2006a), 양재희(2010)는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이 곧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채경선(2006)은 변혁적 리더의 부모인 경우 자녀들에게 장기적 목표달성을 동기화시킴으로써 초등학교 자녀가 인지하는 가족건강성을 상승시킨다고 하였으며, 강동구(2010)는 어머니가 위임형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아동기 자녀의 목표 달성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력, 인간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음 가정리더십에 대한 질적연구는 주로 국내외 리더 인물중심의 사례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즉 중국 어머니리더십을 유형별로 고찰한 양동숙(2007), 한국사 속의 섭정을 통해 본 어머니리더십을 탐구한 한희숙(2007), 자기확신·창조적혁신성·커뮤니케이션·임파워먼트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국내외 리더의 어머니를 연구한 김경아(2008) 등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공한 리더 곁에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숭선수범과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어머니의 리더십이 함께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리더십의 역량이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가정리더십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시되었다. 즉 한국리더십센터(<http://www.eglc.co.kr>)에서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을 비롯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청과 질문을 통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 하는 ‘가족워크숍 자녀성공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경아(2005)는 가정리더십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청소년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일을 여는 푸른힘 리더십’ 프로그램을 총2회 실시하고 그 성과를 입증하였다. 부연하면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리더십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 박미석과 김경아(2006b), 정영금과 송혜림(2007)도 각각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가정CEO’와 ‘건강가정 주부CEO’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질적, 양적으로 그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정관리자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가정을 경영하는 CEO의 마인드를 지니고 보다 명확한 비전과 가족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리더의 자질을 자녀와 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기의 성공적인 개별화 과정은 부모

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촉진되는 만큼 제1의 정서적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리더십 역할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심리적복지감

최근 들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의 안녕감 혹은 행복감과 관련된 주관적인 지각인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개개인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또한 성이나 연령, 문화권 등 개인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실제 부나 지위 같은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 심리적복지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던 초기와 달리 점차 자원만족도 같은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요소가 심리적복지감의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의 이분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중, 장년기 성인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으나, 최근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전 연령에 걸친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도 포함하여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김민정(1996)은 개인이 스스로의 안녕에 대해 느끼는 모든 주관적인 느낌이며 신체 및 물리적 복지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Diener(1984)는 심리적 복지와 주관적

복지를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여 심리적 복지의 개념 안에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심리적복지감의 척도 개발을 시도한 Ryff(1989)는 자기수용,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등 여섯 개의 하위영역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최진원(2001)은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인밀감, 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의 여덟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복지를 설명한 학자들과 달리 심리적복지가 삶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생활만족도나 행복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즉 Adelman(1994)은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하위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심리적복지감을 행복감과 우울감으로, 혹은 생활만족도와 우울, 혹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등 같은 맥락의 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각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생활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지각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한편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Arnold 등(2007)은 변혁적리더십과 심리적복지감과의 관계를, Huppert(2010)는 아동 및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중년기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ucharme(1994)은 노인기 부부의 지원과 대처행동 및 심리적복지감과의 관련성을, 범경아(2010)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훈련이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에는 개인내적 요인 및 환경요인

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상 생애 초기나 전기에 해당되는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경숙과 변미희(2002)는 보육관련변인이 유아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으며, 최진원(2001)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복지감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개인 내적 요인 및 환경 요인과 심리적 복지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김희화(2005)는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를 어머니와의 연결선 상에서 연구했으며, Trainora와 그의 동료들(2010)은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심리적복지감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심리적복지감은 특별한 인간발달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인생주기에 있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유효한 측정지표로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동기에 부모의 따뜻한 양육지원은 곧 바로 청소년기의 심리적복지감과 연결됨을 상기해 볼 때, 청소년기의 심리적복지감은 또 다시 그 이후의 발달단계인 성인기와 노인기의 발달과 적응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내적 요인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정환경과의 연결선 상에서 청소년의 심리적복지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감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속성으로 판단하고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심리적복지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전 생애과정 상에서 진로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한 정의를 살펴보면, Hackett와 Betz(1981)는 진로와 관련된 과제, 결정, 행동, 적응 과정 등 진로발달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으로, Mazurek와 Shoemaker(1997)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뢰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미래사안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인생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기대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동기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다각적인 자원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에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 로드맵을 구축화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인생의 그 어느 주기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토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이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에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을 뜻하는 자기효능감은 곧 자신의 느낌과 사고, 동기화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기초하여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에 처음 적용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중 Taylor와 Betz(1983)는 특정 과제에 국한되었던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CDMSE)의 측정도구를 개발, 수량화하여 진로정체성과 진로성숙성 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하위영역 분류를 살펴보면 우선 Hackett와 Betz(1981)는 교육요구와 직업요구로 나누어 직업적진로자기효능감(occupational career self-efficacy)을 측정하였으며, Osipow(1987)

는 진로선택 확신성과 진로결정 정도로 진로결정을 연구하였다. 이어 Betz, Klein와 Taylor(1996)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 수립, 문제해결 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Self-Efficacy Scale-SF)를 제시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유나현과 이기학(2009)은 이에 미치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했으며 그 외 진로와 직접 연결된 진로태도 등의 변인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이은경·이혜성, 2002)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이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심리적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향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불안의 감정은 개인에 따라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진로의 사결정과 관련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즉 이를 환원하면 청소년기 올바른 진로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둬 성찰하여 최종적으로 가야 할 비전을 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수준 등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김혜은, 2008)을 미쳐 삶의 방향에 대해 보다 자기결정적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진로와 개인의 심리적복지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고 진로결정을 강화시키는 대안으로 가족환경을 들 수 있다. 실제 부모는 교육적 발달과 진로발달 영역에

서 자녀를 돕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lmer & Cochran, 1988) 특히 가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문화정서상 자녀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좌우하는 진로관련 사항은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지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김수리(2005)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가족이 지지하는 목표와 가족체계의 유지가 개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Hargrove, Creagh와 Burgess(2002)는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정도나 분노, 공격성이 표현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떨어지는데 반하여 가족 간에 경험하는 개방적인 감정표현과 격려 등은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자신감을 심어 준다고 하였으며, 그 중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다른 가족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된다. 이상과 같이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어기제의 환경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응답자가 자기기입식(self-report)으로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본 연구의 척도가 완성되었다.

1)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FMLQ I)은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 등의 총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박미석과 김영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총 2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97$ 로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심리적복지감은 긍정적 측면인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측면인 우울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된 후 통합하였다. 우선 생활만족도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정생활만족과 학교생활만족 및 자기만족의 세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우울수준은 이미 청소년에 사용되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의 CES-D를 변안한 조맹제와 김계희

(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개로 구성된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의 빈도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모두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심리적복지감은 우울을 역코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97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의 척도를 변안한 이은경과 이해성(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네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94$ 로 나타났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고등학교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진로와 관련한 변인을 고려하여 입시라는 같은 목표를 삼고 있는 인문계 계열의 고교로 한정하였다. 2010년 3월 11일~18일에 걸쳐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신뢰도가 낮은 설문을 제외한 총 38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 VIF 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386)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82	47.2	리더 경험 유무	유	235	60.9
	여	204	52.8		무	149	38.6
학년	1학년	92	23.8	리더십교육 경험 유무	유	147	38.1
	2학년	225	58.3		무	236	61.1
	3학년	69	17.9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47.2%, 여학생 52.8%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23.8%, 2학년 58.3%, 3학년 17.9%로 나타났다. 리더의 경험유무와 관련하여서는 리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9%, 그렇지 않은 학생은 38.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끝으로 리더십 교육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더십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이 61.1%에 비해 리더십 교육을 받아 본 학생이 38.1%로 나타나 사회적인 리더십교육 요구도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의 현장은 아직 개발의 여지가 높음을 엿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전체 평균은 3.67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3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혼여성 스스로 인지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3.80점(박미석, 김경아, 2006a)에 비

해 다소 낮은 결과이다. 즉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가정내 리더십역량은 비교적 긍정적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어머니들의 가정운영전략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적자극, 카리스마, 개별적고려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자녀 스스로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적자극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감정적인 자극에 의한 즉각적인 행위변화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가치, 상상력과 사고를 통해 문제인식과 해결에 있어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의 행동(Bass, 1985)을 잘 발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진정한 변혁적 리더십(authentic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영향을 미치려는 타인지향적 리더십이다. 즉 타인지향적 변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리더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족원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은 변혁적리더십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복지감의 전체 평균은 2.87점(100점으로 환산시 72점)이었으며, 생활만족도와 우울은 각각 2.7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9점), 2.0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50점)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은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자기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

〈표 2〉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청소년자녀의 심리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5점 만점)			심리복지감 (4점 만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점 만점)			
하위영역	M	SD	하위영역	M	SD	하위영역	M	SD	
카리스마	3.69	.85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2.97	.64	목표선택	3.63	.83
개별적고려	3.53	.96		학교생활 만족도	2.72	.55	직업정보	3.30	.87
지적자극	3.74	.92		자기만족도	2.60	.61	문제해결	3.40	.93
				전체	2.76	.47	미래계획	3.06	.92
전체	3.67	.84	우울	2.00	.65	전체			
			전체	2.87	.49				

학교 시기 가정 내에서 자녀의 대입준비를 위해 부모를 비롯한 가족원들의 다양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기 가족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행동문제와도 연결됨(Sheppard & Kashani, 1991)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다행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족도가 낮은 것은 대학진학을 가장 핵심목표로 삼고 살아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시험성과와 같은 인지적 성취를 순위화하여 모든 것을 평가하는 생활구조 속에서 자신의 현재상태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우울수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성취향상이라는 기대치에 대한 부담과 이를 해소할 여가환경의 부재 등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2 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8점)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선택,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의 하위영역 순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단기적인 항목에 비해 직업정보나 미래계획 수립 같은 보다 장기적인 진로수립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토대를 두되 삶의 방향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목표 설정과 시간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보다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효능감이 상승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은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자녀들에 비해 심리적복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위영역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이 청소년기자녀의 심리적복지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접적인 연구가 없어 비

교가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Avison & McAlpine, 1992)되어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적절한 감독은 청소년의 심리적복지감을 높인다(김희화, 2005)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 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줌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북돋운다. 부모 특히 가정의 중심점인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양육시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가치체계와 환경을 제공할 때, 궁극적으로 현재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성향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심리적복지감

을 상승시킴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칙과 보상 및 규제에 바탕을 두는 거래적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달리 변혁적 리더십은 상호 간의 신뢰 및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호혜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듯이, 가정내 변혁적리더인 어머니가 보상적(reward power), 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이 아닌 변혁적리더십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복지감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인 심리적복지감은 성인기 이후의 발달경로를 재정립시킬 수 있는 주요기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노년기 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표 3〉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변혁적 리더십	심리적 복지감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자기 만족도		생활 만족도		우울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카리스마	상	3.48	A	2.97	A	2.88	A	3.11	A	1.88	B	3.10	A
	중	2.97	B	2.69	B	2.63	B	2.76	B	1.94	B	2.90	B
	하	2.45	C	2.47	C	2.29	C	2.40	C	2.19	A	2.60	C
	F	130.84***		29.98***		35.02***		106.79***		7.94***		39.72***	
개별적 고려	상	3.43	A	2.97	A	2.91	A	3.10	A	1.74	B	3.20	A
	중	2.98	B	2.65	B	2.54	B	2.72	B	1.98	B	2.85	B
	하	2.54	C	2.51	C	2.36	C	2.47	C	2.16	A	2.60	C
	F	100.41***		27.71***		34.20***		91.07***		8.97***		39.02***	
지적 자극	상	3.39	A	2.90	A	2.87	A	3.05	A	1.91	B	3.06	A
	중	2.96	B	2.69	B	2.53	B	2.73	B	1.99	AB	2.84	B
	하	2.58	C	2.55	C	2.40	B	2.51	C	2.09	A	2.70	C
	F	79.96***		15.12***		25.08***		61.91***		2.81		21.10***	
전체	상	3.47	A	2.97	A	2.91	A	3.12	A	1.89	B	3.10	A
	중	2.97	B	2.67	B	2.59	B	2.74	B	1.93	B	2.89	B
	하	2.44	C	2.48	C	2.30	C	2.41	C	2.19	A	2.60	C
	F	132.77***		28.56***		36.96***		107.66***		7.65**		38.67***	

p<.01 *p<.001

※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SD/2) 이상, 중: M-(SD/2)~ M+(SD/2), 하: M-(SD/2)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되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의 심리적복지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가 안정된 정서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인 가정관리자의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변혁적리더십의 능력이 요구된다.

4.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 일괄적으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들을 합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전체수준 역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자녀는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 수준이 낮다고 인지한 청소년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변혁적 리더들은 비전을 창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가치실현을 위한 사명감을 깨우치게 하는 능력을 지닌다. Bass(1985)가 제시했듯 변혁적리더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둬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가정관리자가 신뢰할만한 비전을 구축하고 자녀를 동기부여시키는 카리스마를 통

<표 4>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		전체	
		M	D	M	D	M	D	M	D	M	D
카리스마	상	3.07	A	3.61	A	3.66	A	2.83	A	3.33	A
	중	2.64	B	3.30	B	3.32	B	2.32	B	2.94	B
	하	2.52	B	2.98	C	3.20	B	2.17	B	2.73	C
	F	22.25***		24.02***		8.33***		32.95***		32.57***	
개별적고려	상	3.09	A	3.65	A	3.69	A	2.80	A	3.35	A
	중	2.70	B	3.25	B	3.28	B	2.36	B	2.94	B
	하	2.44	C	3.00	C	3.19	B	2.16	C	2.72	C
	F	31.72***		29.48***		11.53***		30.93***		41.12***	
지적자극	상	3.07	A	3.60	A	3.65	A	2.75	A	3.31	A
	중	2.60	B	3.32	B	3.36	B	2.37	B	2.96	B
	하	2.52	B	2.99	C	3.17	B	2.19	C	2.74	C
	F	25.27***		26.00***		9.76***		23.41***		33.03***	
전체	상	3.08	A	3.63	A	3.68	A	2.84	A	3.35	A
	중	2.67	B	3.25	B	3.33	B	2.32	B	2.93	B
	하	2.47	C	2.99	C	3.15	B	2.16	B	2.72	C
	F	25.46***		25.63***		10.92***		34.82***		37.06***	

*p<.05 **p<.01 ***p<.001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SD/2) 이상, 중: M-(SD/2)~ M+(SD/2), 하: M-(SD/2)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해 청소년기 자녀의 개별적 상황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청소년기에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할 때, 청소년자녀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능동적인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자녀의 교육적 발달 및 개인적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주목받으면서,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을 돕고(Palmer & Cochran, 1988) 청소년들 또한 상당부분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trilik & Harrison, 1989). 또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효능감 정보의 제공자로서 청소년기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공고할수록 자녀의 진로탐색에 더 적극적(안운정, 20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청소년의 진로를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 또한 부모의 지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김수리, 2005)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역량이 청소년기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듯 어머니의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진로행동 수행에 더 탁월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진로결정과 관련된 태도는 개인과 가족간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리더십 역량은 청소년자녀들이 진로 및 직업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가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높은 포부수준을 격려함으로써 청소년기자녀의 안정적인 진로발달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대상은 다르나 정성현

(2005)의 연구결과, 중고등학교 육상선수지도자의 변혁적리더십이 선수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변혁적리더십의 특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심리적복지감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계가 추가될수록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제 1단계에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때 설명력이 18%($P<.001$)에 머물렀다. 즉 어머니가 가정내에서 변혁적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 집단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 자질 중 개별적고려($\beta=.22$)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을 볼 때, 무엇보다 형제자매 혹은 친구들과의 비교가 아닌 더불어 확일적인 어머니 입장에서의 양육이 아닌 청소년자녀가 현재 처해있는 독특한 상황과 개성 등을 눈높이에 맞추어 공감하고 보듬을 때 보다 건설적이고 진로설정에 확신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제 2단계에서 심리적복지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이 중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beta=.53$)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P<.001$)로 높아졌다. 즉 가정과 학교 및 자신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가 높을 때 미래에 대한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적복지감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자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 때 목표에 대한 추진력과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직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나타난 박지영(1995)의 연구와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이 높다고 인지한 청소년기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건강하다고 나타난 박미석, 김경아(2006a)의 연구와 연결지어 볼 때,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성취해야 할 역할과업 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영향력은 자녀의 긍정정서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결과적으로 환경을 통제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신념을 강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상승에 어머니의 가정내변혁적리더십과 심리적복지감의 기여도가 핵심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발달은 개인적 자원과 더불어 가족체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가정

CEO인 어머니가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자녀가 힘겨운 고교생활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변혁적리더십을 지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높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변화시켜 나간 점에서 변혁적리더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듯이, 변혁적 리더는 타인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자녀에게 긍정적 발전의 과정을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자신이 보다 더 바람직한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십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개념인 것이며, 지금까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개인적 변인들의 연구를 한 차원 넓혀 가정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변인이 유의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기저에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전제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

〈표 5〉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12	.10	-.14	-.11		
	개별적고려	.62	.22*	.34	.12		
	지적자극	.58	.14	.41	.97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	생활만족도			.85	.53***		
	우울			-.09	-.07		
상수		46.12		25.52			
R ²		.18		.33			
F 및 유의도		28.01***		36.33***			

*p<.05 ***p<.001

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 그리고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복지감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변혁적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청소년 집단에 비해 심리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을 운영하는 리더(leader)인 어머니가 변혁적리더십을 접목시켜 상호작용할 때 팔로워(follower)인 청소년기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쳐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가정내에서 리더십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 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사안인 자녀의 꿈이 현실로 가능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를 통한 개별적고려와 지적자극을 줌과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지수가 상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심리적복지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동기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변혁적리더십과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감은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안정과 진로설정 등 긍정적 산출이 청소년 개인적 변인뿐 아니라 가족체계 특히 어머니의 역량과 연결

된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 겨우 10대 후반의 삶을 살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삶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기에 본 연구는 입시라는 공통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문계 대상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집단별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예를 들면,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 고교의 다양한 계열과 유형을 고려한 집단, 새터민을 비롯한 국외 재외거주 기간이 긴 고등학생 집단, 혹은 부적응이나 일탈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설거주 청소년 등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진로설정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복지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의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도를 정확히 수용하고 그에 적절한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를 통해 기성세대인 어머니와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청소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정리더십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가정리더십 프로그램이 가정과 리더십의 단단한 이론적 구축 위에 설립되고 그 효과성 검증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단기성이 아닌 기수를 늘려가며 학교와 기업, 기관 등에서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어머니리더십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 또한 청소년 양육태도에 또 하나의 잣대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이론적 구성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듯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입시준비로 보내야 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해 해야 하는지 그 진로에 대한 명료함과 확신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가장 큰 정서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리더십의 전략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가설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 의도가 긍정적으로 검증된 만큼,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효과적인 역할모색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찾고자 한다. 향후 변혁적리더십 이외에 또 다른 시각의 적합한 가정리더십 버전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정리더십의 패러다임이 가정을 경영하는 CEO인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가정운영전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동구(2010). 부모의 리더십이 아동의 리더십 역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아(2005).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가정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숙명리더십연구-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2, 31-60.
- 3) 김경아(2008). 리더를 길러낸 어머니 리더십의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7), 21-33.
- 4) 김민정(1996).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아동학회지, 17(2), 163-180.
- 5) 김수리(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희화(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

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 8) 박미석·김경아(2005). 기혼여성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9) 박미석·김경아(2006a).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8), 1-13.
- 10) 박미석·김경아(2006b). 가정생활건강성 향상을 위한 가정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가정 CEO-.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13-130.
- 11) 박지영(1995). 인문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백경숙·변미희(2002). 보육관련변인이 유아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아아보육학, 31, 135-152.
- 13) 범경아(2010). 사회기술 훈련이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복지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변중희(1992). 학생·교사·학부모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신연희(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107-132.
- 16) 안윤정(2010).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양동숙(2007). 중국 어머니리더십의 유형별 고찰. 숙명리더십연구-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7, 21-61.
- 18) 양재희(2010).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및 부모역할 행동과 유아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유나현·이기학(2009).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0(4), 2241-2255.
- 20) 이문용외 편저(1988). 올바른 자녀지도 방법을

- 위한 부모의 리더십. 형설출판사.
- 21) 이연승(2007). 21세기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부모를 원한다. 한국유아교육학회소식지, 40.
 - 22) 이은경·이혜성(2002).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23) 정성현(2005). 육상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중, 고등학교 육상선수의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1), 103-117.
 - 24) 정영금·송혜림(2007). 건강가정 주부 CEO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37-53.
 - 25) 조맹제·김계희(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26) 채경선(2006).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리더십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51-59.
 - 27) 최종임(2005). 학부모의 리더십개념인식과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9) 한희숙(2007). 한국사 속의 섭정을 통해 본 어머니 리더십. 숙명리더십연구-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7, 63-88.
 - 30) 홍애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Adelman, P. K.(1994).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6), 227-285.
 - 32) Arnold, K. A., Turner, N., Barling, J., Kelloway, E. K., & Mckee, M. C.(200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ful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2(3), 193-203.
 - 33) Avison, W. R. & McAlpine, D. D.(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34)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35) Bass, B. 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36)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37) Bogenschneider, K.(1997).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schooling: A Proximal process with transcontextual valid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718-733.
 - 38) Burns, J. M.(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 39)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40) Ducharme, F.(1994). Conjugal support, cop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pouse. Research on Aging, 16(2), 167-190.
 - 41) Galbraith, K. A.(2000). Family leadership: Constructing and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family well-being. The University of Utah State University. Ph.D.
 - 42) Galbraith, K. A., & Schvaneltdt, J. D.(2005). Family leadership styles and family well-being.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3(3), 220-239.

- 43)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44) Hargrove, B. K., Creagh M. G., Burgess, B. L.(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185-201.
- 45) Huppert, F. A., Abbott, R. A., Ploubidis, G. B., Richards, M., & Kuh, D.(2010). Parental practices predict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life-course associations among women in the 1946 British birth cohort. *Psychological Medicine*, 40, 1507-1518.
- 46) Kotrilik, J. W., & Harrison, B. C.(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in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14, 47-65.
- 47)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pp. 101-127). NJ: Wiley.
- 48) Mazurek, N. & Shoemaker, A.(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 49) Osipow, S. H.(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50) Palmer, S., & Cohran, L.(1989). Parents as agent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71-76.
- 51)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52) Sheppard, J. A., & Kashani, J. H.(1991). The relationship of hardiness, gender, and stress to health outcome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59, 747-768.
- 53) Trainora, S., Delfabbro, P., Andersonb, S., & Winefield, A.(201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33(1), 173-186.
- 54)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55) 한국리더십센터 <http://www.eglc.co.kr>

- 투 고 일 : 2011년 9월 30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21일